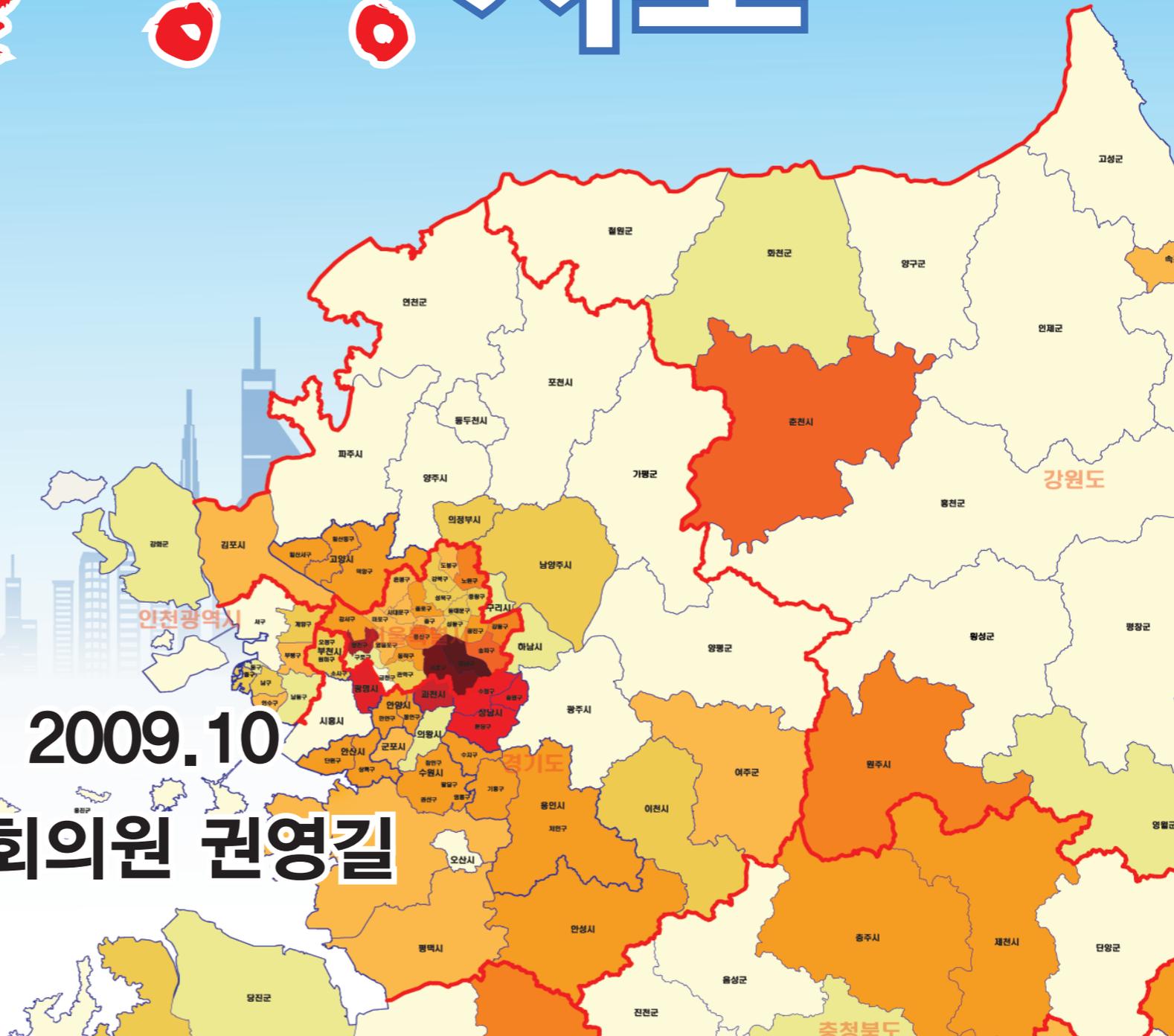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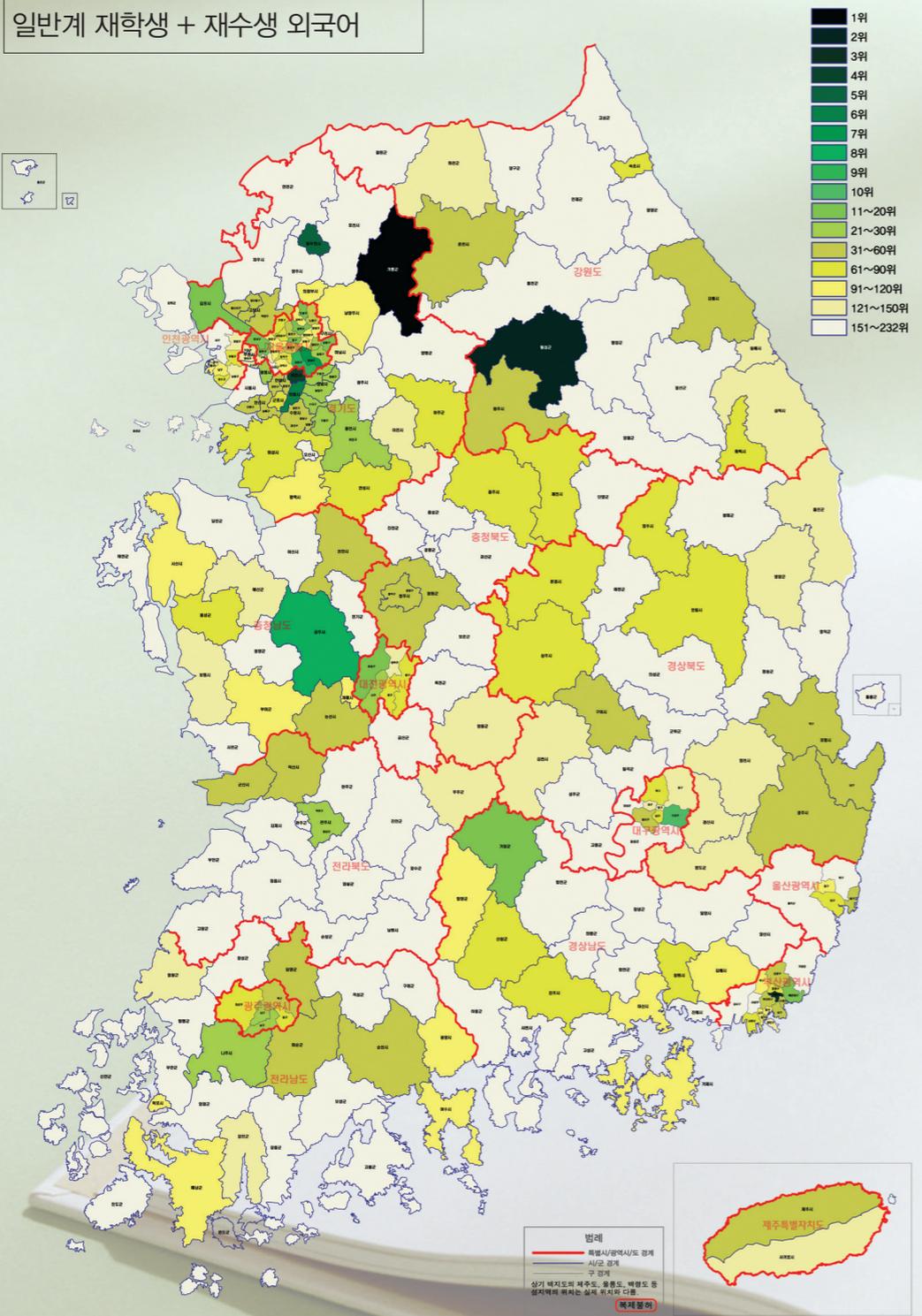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2009.10
국회의원 권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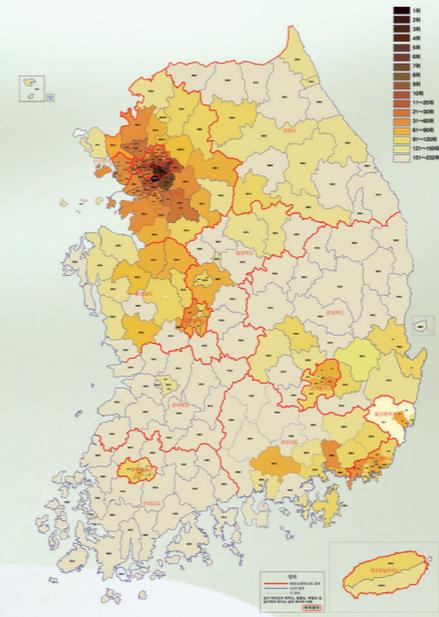


지역별 소득수준과 학력격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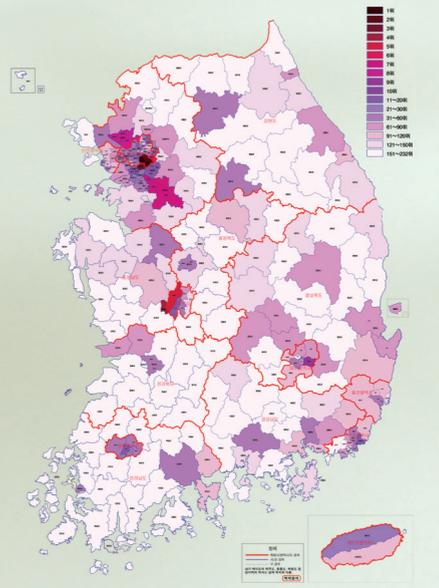
시·군·구별 상위 등급 비율
일반계 재학생 + 재수생 외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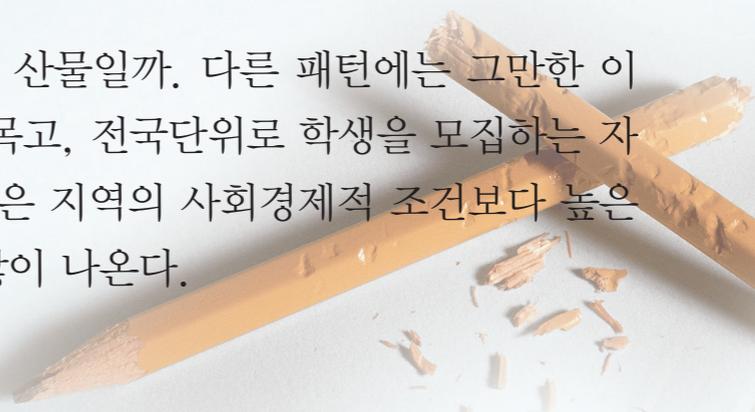
지역별 공시지가



전문대 이상 학력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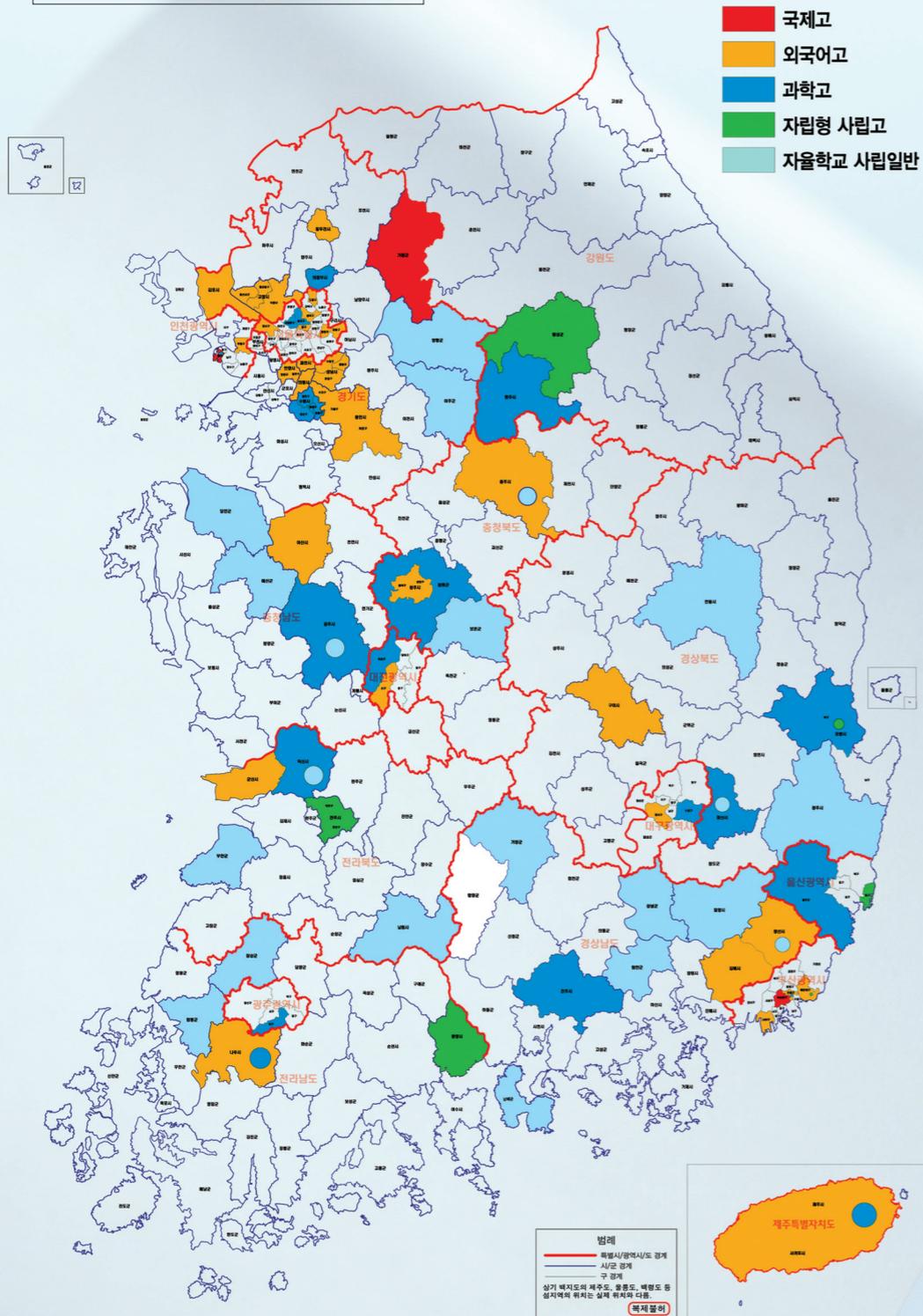


- 지역별 공시지가 순위, 학력 순위와 시구군별 1~2 등급 비율 (외국어 영역)이 높은 지역을 비교했다. 비슷한 듯 다르다. 강원도 회성, 경기도 가평과 동두천, 충남 공주, 전남 나주 등은 집값과 부모 학력 순위가 높지 않은데도 상위권 비율이 높게 나온다.
- 지역과 학생들의 노력의 산물일까. 다른 패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학교들이 위치한 곳들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보다 높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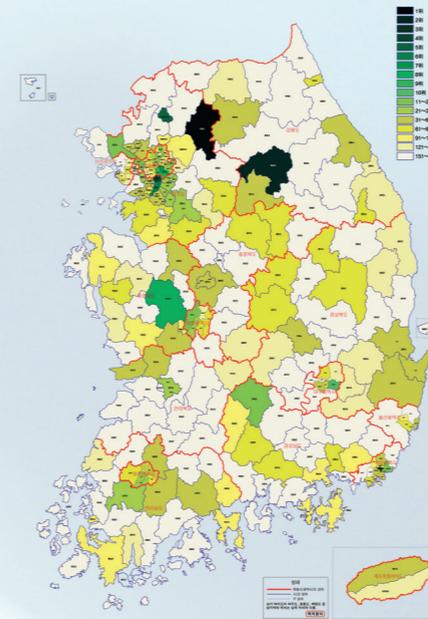


지역별 소득수준과 학력격차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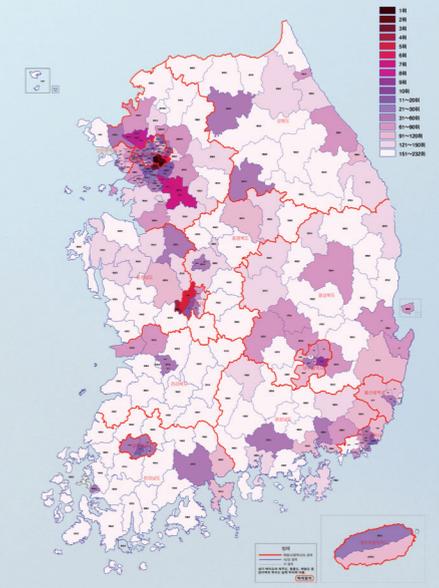
특목고·자사고 위치 지역



시·군·구별 상위 등급 비율



전문대 이상 학력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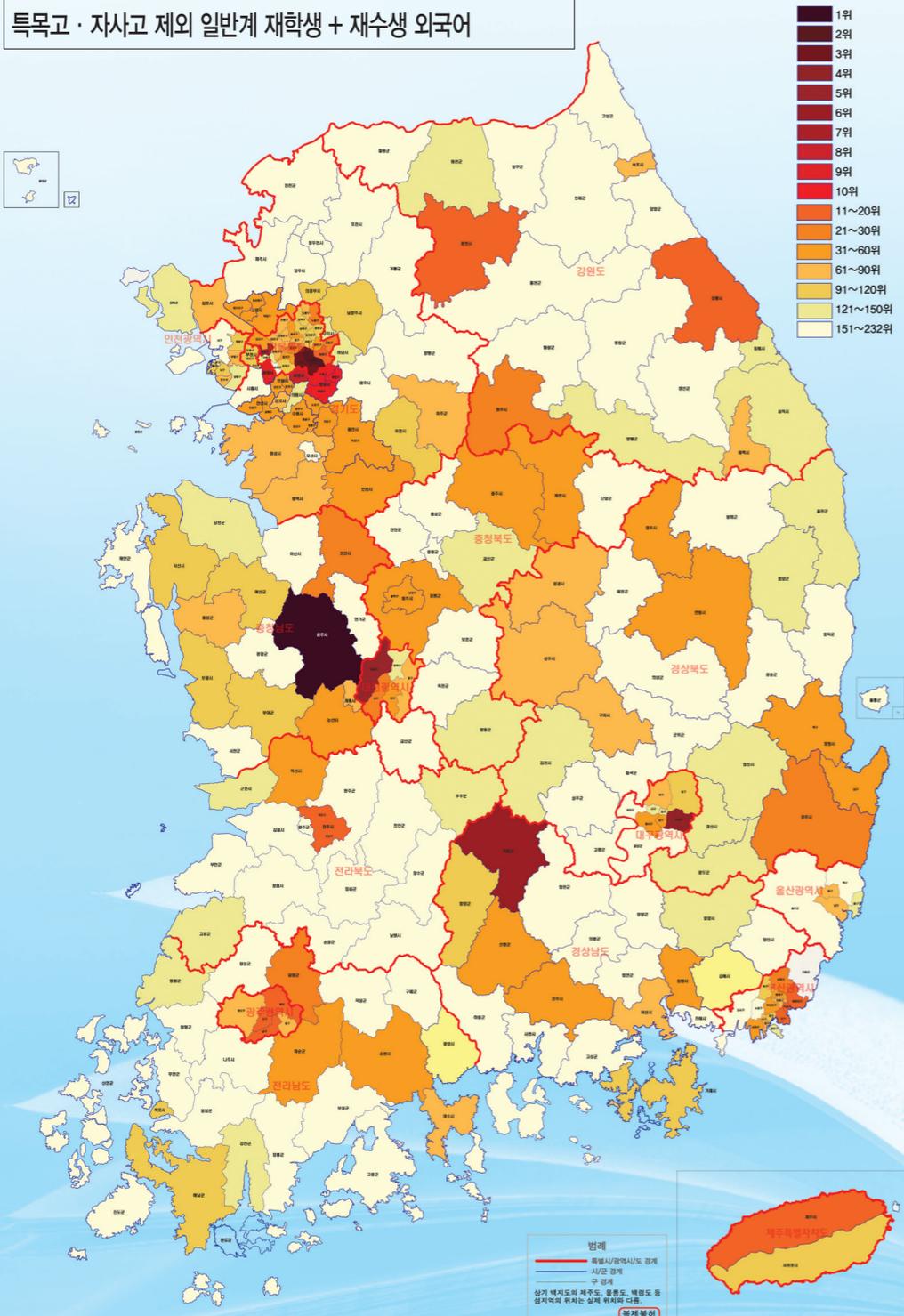


■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수능 상위 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해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두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학교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지역에 다른 학교들이 많아 희석되는 경우이다. 반대로, 지역에 인구밀도가 낮아서 학교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가 하나만 있어도, 전체 평균점수가 올라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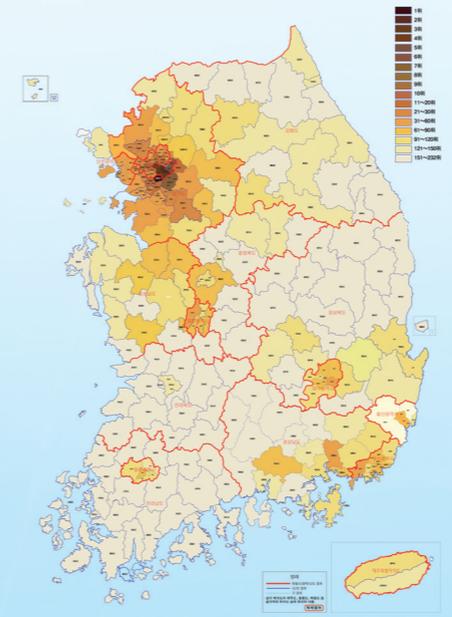
■ 특목고와 자사고가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 학생은 대체로 그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 외지인 비율이 76%에 달한다.

지역별 소득수준과 학력격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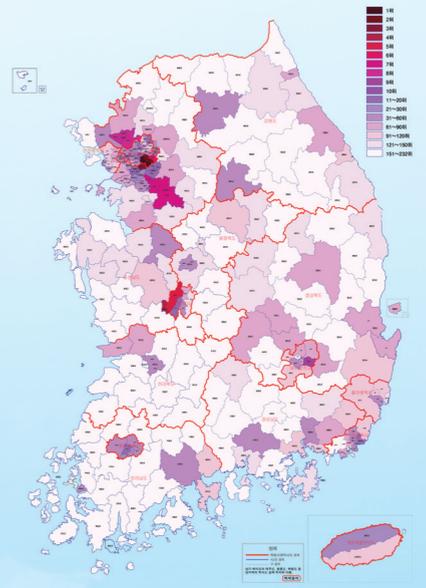
시·군·구별 상위 등급 비율(특목고 제외)
 특목고 · 자사고 제외 일반계 재학생 + 재수생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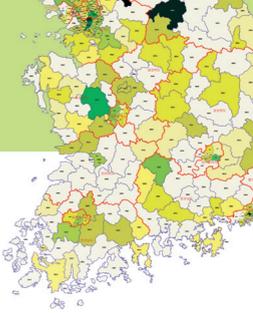
지역별 공시지가



전문대 이상 학력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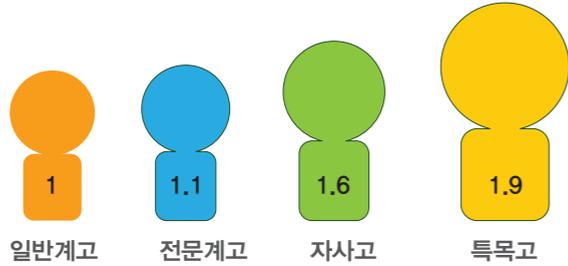


-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한 상태에서 수능 상위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집값과 학력 순위와의 일치도가 높아진다. 특히 학력순위와 상위등급 비율이 대단히 흡사하다.
- 부와 학력이 세대를 뛰어넘어 세습되는 것은 이제 우리교육의 가장 큰 과제가 됐다.
- ‘신반상의 질서’의 공고화를 두고 봐야 할까. 두고볼 수 없다면,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통로를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색이 진한 지역에 덜 투자하고, 색이 옅은 지역에 더 투자하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적극적인 역차별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2. 공교육비 격차

공교육비 전체비용



	특목고	자사고	전문계고	일반계고
1인당 공교육비(원)	11,620,670	9,874,204	6,674,210	6,125,354
전국학교 대비(배)	1.9배	1.6배	1.1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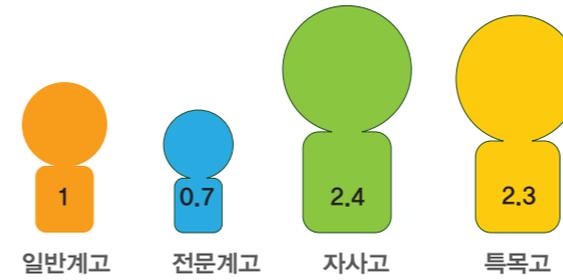
●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1인이 받은 공교육비가 일반고 학생1인보다 각각 1.9배, 1.6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학부모, 학교재단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학교별로 격차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 공교육은 평등하지 않았다.

● 국공립과 사립학교를 구분해서 보면, 사립의 경우 일반계고 대비 청심국제고, 자사고, 외고에 투입된 학생1인당 공교육비가 각각 5.4배, 1.7배, 1.4배 격차를 보였다. 국공립의 경우 일반계고 대비 과학교, 외고에 투입된 학생1인당 공교육비가 각각 4.3배, 1.8배 격차를 나타냈다.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에서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역차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부모 부담 비용

〈표1〉 학생1인당 평균 학부모부담 교육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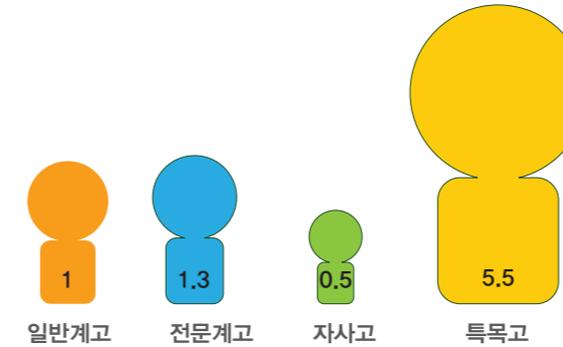
구분	년도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목고	자사고
학부모부담 교육비(원)	06년	2,390,552	1,755,409	4,961,569	5,475,399
	07년	2,496,987	1,732,568	5,661,428	5,701,074
	08년	2,583,312	1,662,105	5,929,008	6,112,947
일반고 대비(배)	06년	1.0	0.7	2.1	2.3
	07년	1.0	0.7	2.3	2.3
	08년	1.0	0.6	2.3	2.4



● 공교육비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의 차이에서 나온다. 수업료 차이는 물론, 수학여행비 등 각종 경비에서도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 서민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물건 살 일이 없다. 고가의 구두, 가방, 옷을 보면서 위화감을 가지는 것도 불행한 일이다. 하물며 교육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빈부격차로 넘을 수 없는 벽이 교육부문에 생긴다는 것은, 사회가 문명에서 야만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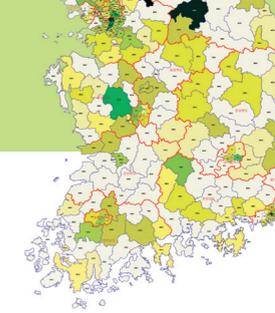
교육재정 목적사업비 격차



구분	전국학교 평균	전문계고	특목고	자사고	
특별교부금 보조금(원)	최근3년	114,102	148,715	1,628,574	77,890
	2006년	74,646	94,934	9,128,251	59,791
	2007년	115,826	144,839	1,051,226	100,695
	2008년	155,256	207,957	846,785	73,868
전국 평균 기준 대비(배)	최근3년	1.0	1.3	14.3	0.7
	2006년	1.0	1.3	122.4	0.8
	2007년	1.0	1.3	9.1	0.9
	2008년	1.0	1.3	5.5	0.5

● 교육격차의 주범 중에 한축은 다름 아닌 정부다. 국민의 세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더 쓰여져야 한다. 유리지갑 노동자 서민을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부자를 위해 쓴다면 조세정의는 무너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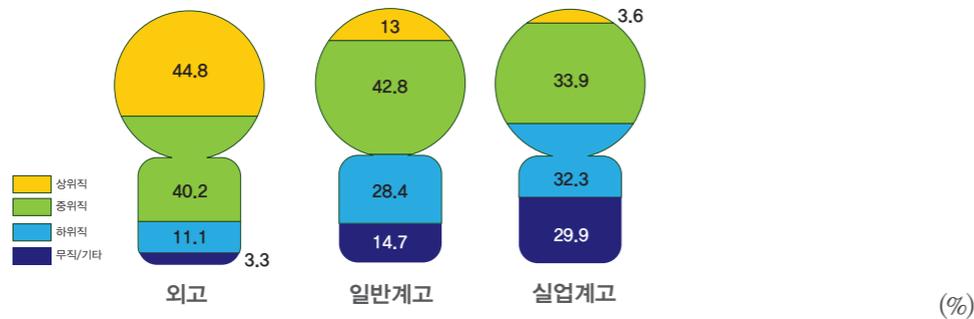
교육불평등지도



● 그러나 교육부문에선 부자 우선의 예산집행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재정 중 목적사업비인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은 특목고에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예산은 교육재정 중 정치인들과 힘있는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는 돈이다. 정책결정 과정을 관장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부자와 특권층이 먼저 들어있음이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3. 학교 급별 부모소득수준



학교 분류	화이트칼라 직종				블루칼라 직종				무 직			기타
	전문직	경영 관리직	교직	사무직	숙련 기술직	판매 서비스직	소규모 농축수 산업	비숙련 노동	전업 주부	정년 퇴직	무직 실업	
외 고	20.22	24.55	4.38	34.75	1.0	10.97	0.05	0.05	0.00	0.14	0.36	2.71
일반고	4.28	8.84	3.65	26.68	12.48	23.88	0.49	4.03	0.00	0.32	2.66	11.71
실업계고	2.09	1.59	0.32%	9.26	24.48	19.78	0.25	12.30	0.06	0.06	7.67	22.13

● 서울시내 6개 외고와 인접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부모의 직업을 조사했다.

계층의 분화는 교실로 침투했다. 함께 사는 사회인데, 교육은 이제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계고 부모의 기타가 높은 이유는 편모가정과 실업자 아버지가 많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 빈곤과 차별이 교실로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다.

4. 명문대 진학률



2009학년도 SKY 대학 입시에서 인문계 외고생 합격자 비율(2009.1.31 기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인문계 모집인원 A	1088	1884	1728
외고생 인문계 합격자 B	235	642	624
합격률 (B/A×100)	21.60%	34.08%	36.11%

● 입시는 병아리 감별하듯 할 수 없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갈라진 계층의 벽을 뛰어 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 학벌질서의 중심아라 할 수 있는 SKY대학 합격자의 비율을 보면, 이미 우리 사회는 고교등급제가 정확히 적용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 외고생이 주로 진학하는 인문계열의 SKY 대학 진학자 비율을 보면, 고려대와 연세대 인문계열의 열명 중 네명이 외고 출신임을 알 수 있다. 20살에 갈려버린 학벌은 이제 운명으로 정착된다. 비정규직 빈곤은 멀어지고, 이제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다른 리그가 벌어진다.

5. 학교 급별 학업중단률

전문계고의 학업 중단율

년도	총학생수 (명, A)	중단자수 (명 B)	학업중단율 (B/A)	학업중단율 격차 비교	
				특목고 대비	고교전체 대비
2006	503,104	12,471	0.025	2.8배	2.1배
2007	494,349	14,696	0.030	3배	2배
2008	494,011	16,882	0.034	4.3배	2배
평균	497,155	14,683	0.030	3.3배	2배

※예술고,국악고,체육고 등 예체능계고등학교 미포함 전문계고등학교

교육불평등지도

● 고교 진학률이 99.8%인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꿈과 진로를 택하는 것이라면 굳이 말할 일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차별과 소외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이라면, 이는 전사회적 범죄행위다.

● 상대적으로 빈곤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업중단률은 전체 고등학생의 2배에 달했다. 특목고와 비교하면 3.3배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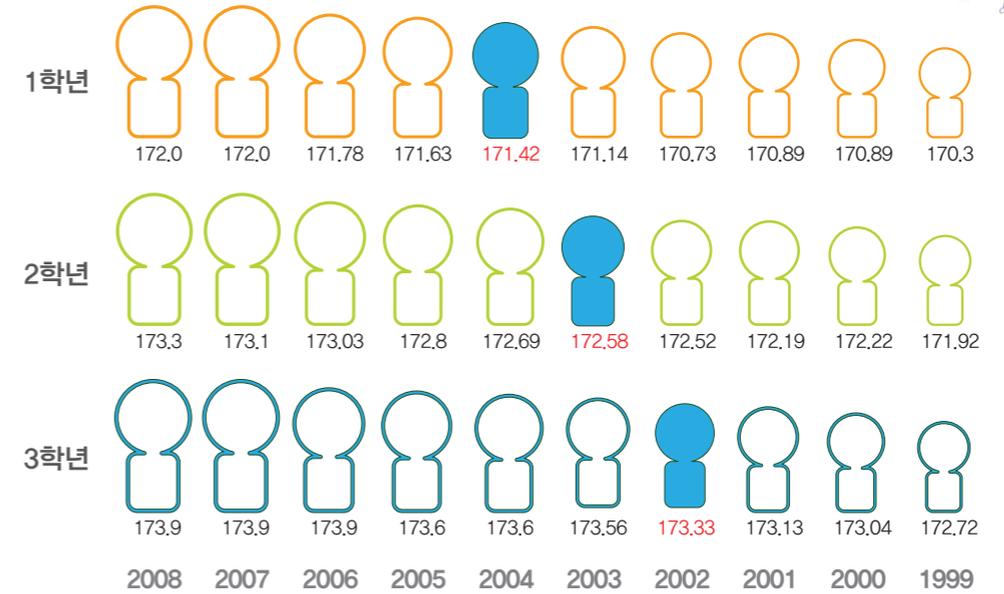
학업 중단자 수는 집값 상위 10개 지역이 집값 하위 10개 지역보다 2.54배 더 많다. 17살에 사회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은 빈곤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된다.

6. 체격조건



학년	평균 키 몸무게	학교유형				전국 평균
		전문계고	일반계고	외고	자립형 사립고	
1학년	키(cm)	171.4	172.2	172.6	172.8	172.0
	체중(kg)	63.6	64.6	64.6	65.6	63.8
2학년	키(cm)	172.6	173.4	174.0	173.6	173.3
	체중(kg)	65.1	66.3	65.6	66.7	65.8
3학년	키(cm)	173.3	174.2	174.1	174.3	173.9
	체중(kg)	67.1	66.8	67.5	69.1	67.7

최근 10년간 남고생의 신체 발달 상황



학교	연령	성별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고	15세	남	172.0	172.0	171.78	171.63	171.42	171.14	170.73	170.89	170.44	170.30
	16세	남	173.3	173.1	173.01	172.80	172.69	172.58	172.52	172.19	172.22	171.92
	17세	남	173.9	173.9	173.90	173.60	173.60	173.56	173.33	173.13	173.04	172.72

- 지난 10년간 학생들의 평균 키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 전문계고 남학생들의 키는 1, 2, 3학년 각각 171.4, 172.6, 173.3cm로 2002~2004년의 전국 평균에 불과하다.(색칠된 부분)

● 산업혁명 초기 영국의 사회과학자들은 노동자 계급이 귀족과 자본가 계급에 비해 체격이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은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생, 외고생의 키와 몸무게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연, 세상은 진화한 것인가? 대한민국은 그에 맞게 진보한 것이 맞는가?